

다니엘서 - 번호 백십삼

예언의 삼중 적용을 밝히기: 성경적 맥락에서 2001년 9월 11일의 의미 이해

Jeff Pippenger

2024-03-03

2001년 9월 11일, 주님께서 말세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로 다시 인도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예언의 삼중 적용 원칙을 밝혀 두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옛 길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안식(늦은 비)을 얻었고, 그때 파수꾼들에게 나팔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의 끝을 가장 분명하게 밝히므로, 말세의 나팔 메시지는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이며, 곧 셋째 화이다.

그분의 말세 백성들이 옛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첫째 화의 특징들이 특정한 상징적 역사적 지도자(무함마드)를 지목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둘째 화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징적 역사적 지도자(오스만)를 지목한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또한 처음 네 나팔 각각에도 그 나팔을 특징짓는 특정한 상징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결과 오사마 빈 라덴이 셋째 화의 상징적 지도자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무함마드는 아라비아와 연관되었고, 오스만은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은 무함마드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출신이었음에도 전 세계적 이슬람 테러를 대표했다.

또한 첫째 화가 로마의 군대를 해쳤고 둘째 화가 로마의 군대를 죽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다. 이어 2001년 9월 11일은 셋째 화의 이슬람이 로마의 군대(미국)를 해친 시점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러나 일요일 때에 미국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결말에 이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에 국가 주권을 넘겨줄 때, 셋째 화의 이슬람이 로마의 군대를 죽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미국이 권세의 두 뿔을 가진 땅의 짐승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땅의 짐승의 주요한 예언적 특징은 어린양에서 용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예언적으로 뿔은 힘을 상징하며, 땅의 짐승의 힘은 공화주의와 개신교로서 땅의 짐승의 두 뿔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땅의 짐승의 두 가지 힘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변했다.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땅의 짐승의 상징인 땅과, 그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 그리고 그 경제력의 상징인 뉴욕시의 쌍둥이 타워를 타격했다.

첫째 화의 초기 역사와 둘째 화의 마지막 시기의 역사가 모두 14만 4천의 인침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 또한 인식되었을 때, 셋째 화가 임하여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14만 4천의 인침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바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곳에 거대한 건물들이 층층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닥쳐올 일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는 특별히 받은 빛이 없고,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의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돌이키심과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세상에는 멸망이 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강하신 능력으로 한 번만 손대셔도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세상에 있는 멸망’은 이슬람의 성격이다. 이는 그 성격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아볼루온과 아바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위에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저갱의 천사로서,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 하고, 그리스어로는 그 이름이 아폴리온이라. 요한계시록 9:11 (NINE ELEVEN).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두 이름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슬람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나 성품의 의미는 ‘죽음’과 ‘파괴’이다. 그 ‘죽음’과 ‘파괴’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찾아왔다.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창세기에서 이슬람의 ‘야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아라비아 들나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으며, 그 구절에서는 이를 ‘야인’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슬람의 상징은 말과(馬科)이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그것이 전쟁마로도 표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신 하박국의 거룩한 도표들에서도, 이슬람은 전쟁마들로 표현되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장차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의 모든 형제 앞에 거하리라. 창세기 16:11, 12.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절제’와 연관되었는데, 이는 이슬람과 관련된 주요 상징이 되었다.

그때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했고, 사래에게는 애굽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부탁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따랐다. 창세기 16:1, 2.

이슬람이 처음 언급되는 장면, 곧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복종이 강조된다. 복종이라는 개념은 이슬람 종교의 핵심이다. "Islam"이라는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아랍어 "salaam"과 "복종하다" 또는 "항복하다"를 의미하는 "aslama"에서

유래했다. 이슬람은 신자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알라(하느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도록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았고, 그 결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네 여종이 네 손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에게 하라 하였더라. 사라가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매 그녀가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물 샘 곁, 솔로 가는 길의 그 샘 곁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아래 복종하라. 또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또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음이라. 그는 거친 사람이 될 것이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요 그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살리라. 창세기 16:6-12.

이슬람의 억제력, 이슬람 종교의 성격을 나타내는 "복종", 그리고 이슬람의 역할은 모두 이스마엘에 대한 첫 언급 속에 들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세 화로 대표되는 이슬람의 예언적 DNA를 나타낸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로 이끄셨을 때, 그들은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의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네 바람"이 곧 이슬람의 네 바람임을 깨달았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은 굴레를 벗어나 온 지면을 가로질러 돌진하려 하며, 지나가는 자취마다 파괴와 죽음을 싣고 가는 성난 말로 묘사된다."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217쪽.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동안 '억제된' '네 바람'이기도 한 이슬람의 '분노한 말'은 그들의 '행로'에 '죽음과 파괴'(Abaddon and Apollyon)를 가져온다. 하갈에게 가해진 억제가 그 예언적 속성을 이슬람의 상징에 부여했듯이, 네 바람과 분노한 말은 모두 억제되어 있으며, 그 사실에 비추어 첫째 화의 시작이 Abubakar의 역사적 명령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에 대한 억제를 가리킨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9:4.

구절 위에 구절로, 세 화의 삼중 적용에서 첫째 화의 시작 위에 겹쳐 놓인 둘째 화의 시작은 네 천사의 풀려남을 지목하며, 그 네 천사들은 그 구절에서 이슬람의 두 번째 대지하드의 풀려남을 대표한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9:14.

그러므로 셋째 화의 시작에 이슬람이 풀려나면서도 억제될 것이라고 이해되었는데, 이는 바로 화의 자매의 증언이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이슬람의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니, 첫째 화 시기의 아랍 이슬람의 전쟁과 업적은 이슬람에서 '첫 번째 대지하드'로, 네 천사가 풀려났을 때 시작된 오스만 제국의 전쟁은 '두 번째 대지하드'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중 적용에 따라 이슬람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지하드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윌리엄 밀러가 한때 썼듯이, "역사와 예언은 서로 일치한다."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시작 예언선을 서로 겹쳐 놓는 것으로 표현된 "줄 위에 줄" 방식의 해제와 동시적 억제의 적용은 예언의 영에 의해 완벽하게 입증되었고,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이 타격을 가한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전 세계적 억제를 가했다. 이슬람의 "성난 말"을 동시에 풀어놓고 억제하는 일은 성경과 예언의 영,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어린양을 따라' 밀러파의 옛 길로 돌아가는 이들은 '안식'을 발견하는데, 그 '안식'은 '늦은 비'이며,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열방이 분노하되 억제되고 있을 때, 곧 2001년 9월 11일에 그랬던 것처럼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어린양을 따라' 밀러파의 옛 길로 되돌아가는 이들은, 화이트 자매가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왔을 때 시작되었다고 밝힌 '침', 곧 '늦은 비'를 발견한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리게 되어 있다. 힘센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그 힘센 천사는 뉴욕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이 시작되며,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할 때 내려왔다. 예레미야의 옛 길로 다시 인도되어 늦은 비인 '안식'을 발견한 이들은, 이사야의 '안식과 새롭게 함' 또한 늦은 비임을 알아보았고, 동시에 그것이 2001년 9월 11일에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시험을 드러내 주는 표지이기도 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시험이 이중적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의 기별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늦은 비의 기별을 확립한 성경적 방법론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하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교훈에 교훈, 교훈에 교훈; 줄에 줄, 줄에 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28:12-14.

옛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보여 준다'고 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14만4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문자 그대로' 반복될 것임을 보게 되었다. 그 비유가 처음 성취되었던 역사에 대한 증언은 하박국 2장이 그 비유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일부임을 밝혀 주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의 '논쟁'은 조롱하는 자들이 듣기를 거부한 안식과 새롭게 함의 시험을 대표하였다. 신실한 성경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옛 길을 살피자, 그들은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 2장이 동일한 예언일 뿐 아니라 에스겔 12장 또한 그러함을 깨달았다.

에스겔의 예언의 한 부분도 신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 날들이 가까웠고 모든 환상의 성취가 임하였느니라. ... 내가 말하리니,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래 후에 있을 일이요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모든 말이 다시는 지연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에스겔 12:21-25, 27, 28. 대논쟁, 393.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 운동으로 표상된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기간은, '모든 이상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말세의 시기를 대표한다. 첫째 화의 예언적 역사를 둘째 화의 예언적 역사 위에 겹쳐 놓으면, 셋째 화의 예언적 역사가 밝혀지는데, 이는 곧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예언적 역사이다. 그것은 또한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일이 성취되는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땅의 짐승의 두 뿔이 여섯째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 전환하는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선지자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예언자들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원칙을 함께 고려할 때, 2001년 9월 11일에 '예언의 날들이 임박했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1863년의 반역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을 모두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내몰았다. 주께서는 카데스에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2001년 9월 11일에 그 역사로 돌아오셨다.

가데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열 명의 정탐꾼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40년이 끝나자 그들은 가데스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째로 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다. 2001년 9월 11일은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며,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말씀을 지연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역사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광야의 방랑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하심은 그들의 이리저리한 모든 행군 가운데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곤비함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을 때 드러났는데, 이는 모든 시대 그의 백성에게 경고와 교훈이 가득한 신적 비유이다. 히브리인들의 다양한 경험은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의 집을 위한 준비의 학교였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배우려는 심령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지나간 불같은 시련들을 되돌아보아,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는 데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쳐지자 생수가 흘러나온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멸망해 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의 피로 샘이 마련되도록 매 맞고 상함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말이다. 그 반석이 한 번만 쳐졌듯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러지실' 것이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모세가 성급히 반석을 쳤을 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름다운 표상이 훼손되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두 번째로 희생되실 분이 아니었다. 그 위대한 제사는 단 한 번 드러졌으므로, 그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회개의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는 일뿐이다. 이러한 기도는 만군의 주 앞에 예수의 상처를 아리게 하며, 그러면 목마른 이스라엘을 위해 흘렸던 생수로 상징되었던 생명을 주는 피가 새롭게 흘러나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과 그의 명령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다. 가데스에서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반역에 지친 모세는 전능하신 도우시는 분을 잊었고, '너희는 그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물을 내리리라'는 명령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능력 없이 걱정과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어 자신의 생애의 기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의 일을 마치는 날까지도 순결하고 굳건하며 이기심 없이 설 수 있었고 또 그래야 했던 그 사람이, 마침내는 굴복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마땅히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때에, 욕됨을 당하셨다.

모세에게 즉시 선고된 심판은 지극히 통렬하고 굴욕적인 것이었다. 곧 그가 반역한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께서 그 한 가지 허물 때문에 그의 종을 가혹하게 대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살아 있던 어떤 사람에게도 베푸신 적이 없을 만큼 모세를 높이셨다. 그의 사명을 거듭거듭 옹호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누렸던 빛과 지식의 분량에 비례하여 그의 죄책도 커졌다. 시대의 징조, 1880년 10월 7일.